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학교법인 경희학원



기후재앙과 진실의 정치 - 미래세대에 미래는 있는가

2019년 9월 16일(월) ~ 19일(목)

경희대학교

제38회 UN 세계평화의 날 제정 기념

Peace BAR Festival

기후재앙과 진실의 정치 - 미래세대에 미래는 있는가

학교법인 경희학원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통해 인간의 인간다운 세상 “문화세계”를 창조하고, 인류의 드넓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경희의 설립취지입니다. 경희의 가치는 우주적 사유, 지구적 사유, 인간적 사유의 안목과 실천으로 더 나은 개인과 인류문명의 미래를 함께 여는 것입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1949년 건학 이래 설립취지와 가치에 따라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법인 산하 각급 기관의 바른 경영, 바른 행정을 선도했습니다. 법인 산하에는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의료원(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경희사이버대학교, 병설학교(경희고등학교, 경희여자고등학교, 경희중학교, 경희여자중학교, 경희초등학교, 경희유치원)를 두고 있습니다.

취 지

“기후재앙과 진실의 정치 - 미래세대에 미래는 있는가”

기후변화의 위기적 징후가 나날이 깊어만 간다. 인류가 당연한 최대의 '실존적 위협'은 기후위기라는 데 국제사회의 뜻이 모아진다. 지난해 그리고 올해 UN과 세계 기후학자들은 천명했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1850년 기준)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극심한 열파와 폭서, 산불,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과 같은 극한의 기상변이 일어난다.' '식량위기, 물 부족, 사회기간시설 파괴, 대규모 난민과 이재민 발생으로 여러 나라의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이 크게 흔들린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과학자들이 전하는 '최후의 한계점' 2도 이상 오르면 범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처참한 세상이 펼쳐진다. 인간에 의한 '열실지구(hothouse Earth)' 현상으로 인류와 지구 생명체 대다수가 파국을 맞는다. 이른바 '여섯 번째 대멸종의 심화다. 2019년 8월 현재 지구 평균기온은 이미 1.1도 상승했다. 산업혁명의 또 다른 출발점 1750년을 기준으로 보면 1.75도나 올랐다.

위기와 재앙의 가능성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경고는 벌써부터 있었다. 반세기 전 로마클럽은 문명 전망 보고서 <성장의 한계>를 내놨다. 인류가 지구를 외면한 채 경제성장에 몰두하면, 21세기 어느 시점에 이르러 지구의 한계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 경고에 귀 기울인 사람은 많지 않다. 인류는 유한 지구에서 무한 욕망을 꿈꿨다. 치열한 경쟁, 과도한 개발의 '팽창신화'를 써 내려왔다. 결과는 '진화 또는 붕괴다. '지구적 차원의 위협'이다.

'인류는 지금 벼랑에서 심연의 끝을 보고 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상 기후현상 데이터가 이를 방증한다.' '시간이 다 돼간다.' '공포를 느껴야 할 때다.' 국제기구, 종교계, 해외 언론, 소셜미디어에서 전달되는 절박한 메시지와 기후재앙의 현장은 앞을 내다보기 힘든 우리의 미래를 말한다. 미래는 선택이다. '과도한 성장과 팽창, 경쟁과 쟁취의 패러다임'을 '지속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우리 삶의 기반은 더 이상 존속 가능하지 않을지 모른다.

미래세대는 절규한다. '어른들이 우리의 미래를 빼앗아가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눈앞 이익에 몰입해 근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요.' 학계, 언론계, 기성사회, 세상 정치가 풀어야 할 눈앞의 과제다.

PBF 2019는 인류사상 유례없는 '인위적 기후변화(Anthropogenic Climate Change)의 시대'를 맞아 지금 우리가 직면한 기후재앙의 실존적 위협을 다룬다. 이와 함께 오늘의 재앙 국면을 초래한 세계사, 기후사, 문명사의 어제와 오늘을 짚어보며, 미래세대의 미래를 있게 할 의식과 담론, 정치적 상상과 서사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선다. '성찰과 모색과 실천의 길.' 문명사적 위기의 와중에서 그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PBF 2019의 취지다.

초 대

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Peace BAR(spiritually Beautiful, materially Affluent, humanly Rewarding) Festival 2019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경희와 세계대학총장회의 제안으로 UN 총회가 세계평화의 날을 채택한 지 38년이 된 해입니다. 1981년 '우주전쟁'의 전운이 감돌던 냉전 시기에 채택된 이 날의 의미는 이 시대 '균열의 현대사회'가 여전히 풀어가야 할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원자과학자협회는 '지구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를 자정 2분 전으로 조정했습니다. 1947년 분침 설정 이래 가장 '긴박한 시간'입니다. 전쟁과 테러, 핵과 생화학 무기의 위협, 나날이 그 빈도와 강도, 규모를 더해가는 가공할 기후변화의 지구적 여파가 이제 '위기를 넘어 '재앙'과 '붕괴'를 부를지 모른다는 절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재앙과 진실의 정치 - 미래세대에 미래는 있는가.” PBF 2019의 주제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지구. 유일한 지구. 우리 삶의 터전이 나날이 거칠어지는 가운데 묻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의 현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세상 정치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위해 기성세대, 기성사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리를 함께하셔서 미래세대와 함께 호흡하며, 더 나은 지구와 인간의 미래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 **조 인 원**

세계평화의 날 제정 배경

매년 9월 21일은 UN이 제정한 '세계평화의 날'이다. 1981년 11월 30일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된 제36차 UN 총회는 15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1982년부터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로(세계평화의 날은 2001년부터 9월 21일로 고정),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정한다'고 결의했다. 결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세계평화의 날은 모든 국가와 시민이 평화의 이상(理想)을 기념하고 고양하고자 제정됐으며, 모든 UN 회원국, 산하 기관과 기구, 지역 기구, NGO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UN과의 협력하에 특히 교육적 수단을 통해 세계평화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것을 권유한다."

- 1981년 11월 30일 제36차 UN 총회 결의문(Resolution 36/67) 중에서

'세계평화의 날/해'는 냉전 시대가 종식되는 하나의 계기로 평가받는다. 당시는 동서 냉전이 극에 달해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이 우려되던 시기였다. '세계평화의 해'를 맞아 미국과 소련 양국 정상이 상대국 국민에게 신년 평화의 메시지(New Year's Messages of President Reagan and General Secretary Gorbachev, January 1, 1986)를 전하고, 군축 회담을 개최하는 등 해빙 분위기가 조성됐다.

'UN 세계평화의 날/해' 제정을 최초로 제안한 것이 경희대학교다. 경희는 1981년 7월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 세계대학총장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IAUP) 제6차 총회에서 UN이 '세계평화의 날/해'를 제정 및 공포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IAUP는 600여 대학 총장들의 전원 일치로 이 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한국은 UN 회원국이 아니어서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 경희는 코스타리카 정부의 도움을 얻어 UN에 '세계평화의 날/해' 제정을 요청하는 의안을 제출했다.

개요

Peace BAR Festival 2019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세계평화의 날 기념 원탁회의



'Dear Amazon: 인류세 2019'
전시회

Peace BAR Forum

함께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Peace BAR Forum 9월 18일(수) 15:00 ~ 17:00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주제 Save the Earth, Make the Future 패널 피터 와담스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이안 던롭 로마클럽 회원 미래세대 대표 국내외 학생 10여 명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9월 19일(목) 10:30 ~ 11:30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개회
	세계평화의 날 개관(영상)
	축사 이리나 보코바 경희대학교 미원석좌교수
	미래세대의 선언(영상) 우리에게 2050년은 있는가?
	기념사 10년의 미래, 정치와 의식 - 기후위기의 새로운 국면 조인원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
	기념 공연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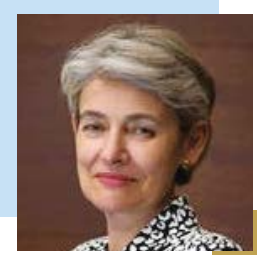
세계평화의 날 기념 원탁회의 9월 19일(목) 13:30 ~ 16:00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개회 기후재앙과 진실의 정치 - 미래세대에 미래는 있는가
	기조발제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2007~2016) 이안 던롭 로마클럽 회원 피터 와담스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Dear Amazon: 인류세 2019' 전시회 9월 16일(월) ~ 19일(목) 10:00 ~ 17:00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원탁회의 좌장 이리나 보코바 경희대학교 미원석좌교수 패널 피터 와담스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이안 던롭 로마클럽 회원 조인원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
	내용 브라질과 한국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인류세(Anthropocene, 인류에 의한 환경 파괴가 지구의 지층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시대)를 주제로 아마존의 환경 파괴,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다룬 전시회

원탁회의 참석자



반기문

- 제8대 UN 사무총장(2007~2016)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2004~2006)
- 연세대학교 석좌교수 겸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



이리나 보코바

- 경희대학교 미원석좌교수 겸 후마니타스칼리지 명예대학장
- 유네스코 사무총장(2009~2017)
- 주프랑스 불가리아 대사
- UN 글로벌교육협력구상(GEFI) 사무국장



피터 와담스

- 케임브리지대학교 응용수학 및 이론물리학과 해양물리학 교수
- IAPSO(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hysical Science and Oceans Commission on Sea Ice) 회장
- IPAB(The International Programme for Antarctic Buoys) 코디네이터



이안 던롭

- 로마클럽 회원
- ASPO Australia(The Australi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eak Oil and Gas) 부의장
- Australian Coal Association 의장(1987~1988)
- Royal Dutch Shell 이사(1965~1992)
- Australian Institute of Company Directors 회장(1997~2001)



조인원

-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
- 경희대학교 총장(2006~2018)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지표심사위원(1997)
- 서울 NGO세계대회 삼자공동추진위원회 한국대표(1999)
- 세계시민포럼(WCF) 의장(2009)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올해 Peace BAR Festival(PBF)은 “기후재앙과 진실의 정치 - 미래세대에 미래는 있는가”를 주제로 기후위기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해 인류가 당면한 기후변화의 재앙을 풀어나갈 실천적 지혜를 모은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미래’를 위한 철학과 가치를 모색한다.

PBF 2019를 여는 기념식은 UN 세계평화의 날 제정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한 소개 영상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리나 보코바 경희대학교 미원석좌교수의 축하 메시지와 미래세대의 전언을 담은 영상 상영, 조인원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의 기념사, 기념 공연이 이어진다.

일 시 2019년 9월 19일(목) 10:30 ~ 11:30
장 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개회	이한구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원장
세계평화의 날 개관	영상	
축사	이리나 보코바	경희대학교 미원석좌교수
미래세대의 전언	영상	우리에게 2050년은 있는가?
기념사	조인원	10년의 미래, 정치와 의식-기후위기의 새로운 국면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
기념 공연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Peace BAR Forum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 그리고 얼음이 사라지고 있는 북극. 이 모두 산업화 시대의 ‘탄소문명’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결과다. UN과 기후학자, 전문가들은 ‘전시와 같은 전폭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계의 정치권은 눈앞의 ‘현실정치’에 몰두하며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사회 일각에서 ‘기후변화는 거짓’이라는 기류를 만들고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Peace BAR Forum에서는 “Save the Earth, Make the Future”를 주제로 석학과 학생이 함께 기후위기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인류문명에 미치는 파급과 미래세대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일 시 2019년 9월 18일(수) 15:00 ~ 17:00
장 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주제	Save the Earth, Make the Future	
패널	피터 와담스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이안 던롭	로마클럽 회원
	미래세대 대표	국내외 학생 10여 명

세계평화의 날 기념 원탁회의

“어른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훔쳐 가고 있다.” 지난해 8월,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한 그레타 툰베리(16세)가 한 말이다. 이에 공감한 전 세계 청소년이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거리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미래세대가 현재의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미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강력히 표출한 것이다. 세계평화의 날 기념 원탁회의는 이 위기의식에 주목한다.

“기후재앙과 진실의 정치 - 미래세대에 미래는 있는가”를 주제로 국내외 석학, 정치인, 실천가가 열린 대화를 나눈다. 이들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후위기의 급박성을 일깨우는 한편, 기후변화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일 시 2019년 9월 19일(목) 13:30 ~ 16:00
장 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주제	기후재앙과 진실의 정치 - 미래세대에 미래는 있는가
기조발제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2007~2016) 이안 던롭 로마클럽 회원 피터 와담스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원탁회의 좌장 패널	이리나 보코바 경희대학교 미원석좌교수 피터 와담스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이안 던롭 로마클럽 회원 조인원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

‘Dear Amazon: 인류세 2019’ 전시회

올해 Peace BAR Festival에서는 특별한 전시를 선보인다. 브라질과 한국의 예술가들이 ‘생태학적 상상’으로 인류세(Anthropocene) 문제를 이야기하는 ‘Dear Amazon: 인류세 2019’가 그것이다. 일민미술관이 기획한 이번 전시는 드로잉, 설치, 퍼포먼스 등을 통해 현시대의 상황과 미래를 전망하는 ‘Dear Amazon’, 다양한 활동으로 기후변화를 인식하는 ‘라운지 프로젝트’, 인류세를 주제로 한 영상 작품을 선보이는 ‘스크리닝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Dear Amazon: 인류세 2019〉는 일민미술관이 기획하고, 상파울루 Videobrasil과의 협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2019년 5월 31일부터 8월 25일까지 일민미술관에서 열렸다. 본 전시는 경희대학교 Peace BAR Festival을 위해 특별기획전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일 시 2019년 9월 16일(월) ~ 19일(목) 10:00 ~ 17:00
장 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참여 작가	<p>Dear Amazon 귀 풍데, 루카스 밤보지, 마르셀 다린조, 마베 베토니코, 조나타스 지 안드라지, 주앙 제제, 티아고 마타 마사두X신시아 마르셀</p> <p>라운지 프로젝트 Dear Tomorrow 김규호, 김한민X김희애, 송민정X위지영, 오서로, 조은지, 파도식물</p> <p>스크리닝 프로그램 Videobrasil Historical Collection 오나 바스, 치아고 마르친 지 멜로, 로베르토 벨리니, 에데르 산토스, 사오 기마랑이스, 까에따노 지아스, 에두아르도 클리마하우스카, 구스타브 모라, 누노 하모스, 시코 단타스, 지젤 바이구엘만&루카스 밤보지</p>
--------------	---

함께하는 프로그램

후마니타스칼리지 세계평화주간 기념식

세계평화를 중심으로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 성과를 되짚어보고 세계평화를 위한 교육 실천과 활동을 다짐한다.

일시 및 장소 2019년 9월 17일(화)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마당 /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관 B114호

주제	경희와 세계평화교육
대상	경희 구성원 및 일반인
주관	서울·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세계시민교육 및 평화교육 전시회

후마니타스칼리지 출범 이후 교양교육이 걸어온 발자취와 활동 기록을 전시한다.

일시 및 장소 2019년 9월 17일(화) ~ 20일(금)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마당 /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관

주제	경희와 세계평화교육
대상	경희 구성원 및 일반인
주관	서울·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세계평화의 날 기념 백일장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기후위기와 미래세대'를 주제로 백일장을 진행한다.

일시 및 장소 2019년 11월 7일(목) 서울캠퍼스 오비스홀 151호

주제	기후위기와 미래세대
대상	경희 구성원 및 일반인
주관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글쓰기센터

UNAI ASPIRE 경희 '평화의 나무'

사람들의 아픔을 서로 공유하고 치유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

일시 및 장소 2019년 9월 17일(화)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마당
2019년 9월 18일(수)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 앞마당

주제	평화의 나무
대상	경희 구성원 및 일반인
주관	서울·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세계평화의 날 기념 캔버스 모듈 설치미술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여러 개의 캔버스 조각을 모아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설치미술을 진행한다.

일시 및 장소 2019년 9월 18일(수) ~ 20일(금) 서울캠퍼스 청운관 2층 로비

주제	내가 모여 우리로
대상	경희 구성원 및 일반인
주관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경희 Peace Road 탐방

캠퍼스를 돌며 경희의 평화운동 역사와 상징물의 탄생 배경, 의미 등을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일시 및 장소 2019년 9월 17일(화) 14:00 서울캠퍼스
2019년 9월 18일(수) 14:00 서울캠퍼스

주제	경희와 세계평화교육
대상	경희 구성원 및 일반인
주관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미래문명원, 경희기록관

경희 평화운동 사진전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사진전을 통해 경희 평화운동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한다.

일시 및 장소 2019년 9월 17일(화) ~ 20일(금) 서울캠퍼스

주제	경희 평화운동
대상	경희 구성원 및 일반인
주관	경희기록관

UNAI ASPIRE 경희평화포럼

PBF 2019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 포럼은 국내 대학생 및 관련 인사들을 초청해 평화를 위한 실천 대안 및 의견을 개진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일시 및 장소 2019년 9월 21일(토) 10:00 ~ 18:00 서울캠퍼스 법과대학 401호

주제	기후변화 그 결과의 시대, 우리의 삶의 방식은 괜찮은가?
대상	UNAI ASPIRE 회원 학생 및 일반 학생
주관	UNAI ASPIRE Kyung Hee, UNAI ASPIRE KOREA

Peace BAR Festival 연혁
- 한반도에서 몸, 문명, 우주까지

경희대학교는 1981년 경희의 제안으로 제36차 UN 총회에서 제정된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1982년부터 매년 세계평화의 날에 즈음해 Peace BAR Festival을 개최해왔다.

1982~1990

1982	현대사회의 위기와 국제평화
1983	세계평화: 그것은 가능한가
1984	UN을 통한 세계평화
1985	UN: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986	국제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 모색
1987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1980년대 후반의 한반도
1988	동북아 시대와 21세기의 한국, 중국, 일본의 역할
1989	동서 갈등을 넘어선 평화: 1990년대 동북아의 안위와 세계평화
1990	동서 관계의 변화와 평화로운 신국제질서의 모색

1991~2000

1991	신국제질서: 21세기 탈이데올로기의 세계
1992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신국제질서
1993	동북아시아의 평화: 지역협력을 향하여
1994	도덕과 인간성 회복
1995	관용, 도덕과 인간성 회복
1996	21세기, 세계공동체를 향한 평화전략과 UN의 역할
1997	21세기의 비전과 현실: 동아시아의 역할
1998	새로운 천년을 향한 인류의 비전: 현대문명을 넘어서
1999	21세기, 평화는 가능한가
2000	21세기의 글로벌 거버넌스

2001~2010

2001	문명 간 대화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2002	Pax UN을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2003	네오르네상스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2004	평화를 위한 긴급 과제: 테러리즘의 극복
2005	이념 이후의 시대: 21세기 대안문명을 말한다
2006	21세기 보편의 재발견: 자유와 평등을 넘어서
2007	전환적 도전: 새로운 인성과 공동체를 찾아서
2008	미래문명, 미래대학: 지식과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2009	경희 평화 워크숍
2010	몸과 문명: 나는 몸이다

2011~2018

2011	몸과 재양: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2012	인간, 정치, 문명
2013	문명과 고등교육: 큰 배움을 찾아서
2014	우주의 인간, 인간의 공적 실천
2015	함께할 우리의 가치, 그 가능성의 미래
2016	지구문명의 미래: 실존혁명을 향하여
2017	전환의 시대: 촛불과 평화의 미래
2018	전환문명 시대의 한반도: 그 가치와 철학